

‘혼불’의 절절한 창작혼, 한옥마을에 문학의 옷 입히다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10> 작가 최명희와 전주시



최명희문학관은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문학혼과 삶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6년 전주시 풍남동 한옥마을에 건립되었다.

소설 ‘혼불’의 태생지에 2006년 건립
2014년 ‘올해의 최고 문학관’ 뽑히기도
문학제·문학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하루 400여명 주말엔 5000명까지 찾아



최명희문학관 내부.

‘혼불’을 대하소설로 형상화한 작가가 있다. 전주 출신 작가 최명희(1947~1998). 100인의 전문가들은 90년대 최고의 책으로 ‘혼불’을 선정할 바 있다. “한국문학이 이룬 가장 큰 성과”라는 상찬은 주례사 비평에서나 나오는 의례적인 수사가 아니다. 한 땀 한 땀 세공하듯 써내려간 글에는 작가의 혼(魂)이 서려 있다. 소설에 따르면 사람은 혼(魂)불이 있다고 한다. 육신에 거주하는 푸르스름한 불로 생명의 불, 정신의 불을 일컫는다. 사람이 죽을 직전에 이르러 이 혼불은 육신이라는 집을 벗어난다고 한다. 죽을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있는 그 무엇이 바로 혼불인 것이다.

최명희. 그녀만큼 작가라는 명칭이 어울리는 예술가도 드물다. 최명희는 작가로 태어나 작가로 살다 작가로 죽었다. 그러므로 ‘최명희 작가’는 이름인 동시에 고유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시인 고은은 ‘혼불’을 “정교하게 만든 정신의 끝에 피를 묻히며 새긴 처절한 기호”라고 평했다.

전주 한옥마을(풍남동)에는 최명희문학관(관장 장성수)이 있다. 한국의 전통, 역사, 문화가 수백 여 채의 한옥과 함께 응결된 곳이 전주다. 작가는 고향 전주를 ‘천년이 지나도 이 천년이 지나도 또 천년이 가도, 끝끝내 그 이름 완산이라 부르며 꽃심 하나 깊은 자리 심어 놓

은 땅’이라 표현했다.

“최명희의 생각은 바로 한옥마을 뒤편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생각 터가 남아 있고 지금은 소방도로가 나왔지요. 문학관이 생각에 건립되지 않고 한옥마을에 들어선 것은 그 때문입니다.”

정성혜 최명희문학관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이어 “이곳은 가장 전주적인 감성이 녹아 있는 곳”이라며 “한옥마을의 다양한 공간과 연계해 최명희를 조명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또한 “작가가 어린 시절 한옥마을 중심으로 자주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작품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근원에 대한 그리움이 스며 있다”고 덧붙인다.

최명희의 본격적인 문학인생은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쓰러지는 빛’이 당선되면서 시작된다. 이듬해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공모전에 장편소설 ‘혼불’(제1부)이 당선, 중앙문단에 그녀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킨다. 1980년 4월, ‘혼불’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고. 단문으로 시작한 첫 원고는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흐른 1996년에야 “그 온몸에 눈물이 차 오르다”로 완결된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어쩌면 문학과 결혼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창작의 혼을 불태웠던 작가는, 그리

나 안타깝게도 1998년 암으로 생을 마감한다.

‘혼불’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남원의 매향 마을과 거명굴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매향 이씨 가문의 삼대를 이루는 청암 부인과 그 아들 이기채 부부, 손자 이강모와 허효원 부부 등이 주인공이다. 기존의 소설이 드라마틱한 사건 전개와 역동적인 모티브를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되었다면, ‘혼불’은 민속과 문화를 아우르며 다양한 담론을 담아낸다.(남원에는 소설 ‘혼불’의 배경이 되었던 혼불문학관이 있다.)

최명희문학관은 혼불기념사업회(2000년 설립)가 근간이 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전북대, 문인단체, 유족 등이 중심이 되어 꾸려졌으며 전주시에 혼불문학공원, 최명희문학관 건립을 제안했다. 한민족의 삶과 정신을 빛나는 언어로 형상화한 최명희의 문학을 기려야 한다는 지역민의 성원도 큰 힘이 되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500여 평 부지를 매입해 2006년 문학관을 건립하기에 이른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문학관에는 주전시관인 독락재(獨樂齋), 문학강연장, 수장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학관 관리와 운영은 개관 초부터 지금까지 혼불기념사업회가 맡아오고 있다.

최명희문학관은 지난 2014년 한국문학관협

회가 선정한 ‘올해의 최우수문학관’으로 선정되었다. 당시의 심사평이 이렇다. “소설 ‘혼불’에다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활동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역문학 발전의 중심적 역할 뿐만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이들에게도 문학을 매개로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곳에선 혼불문학제, 혼불학술제, 문학기행, 손글씨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옥마을에 위치한 터라 일일 평균 적게는 400명이 방문하고 맑을 때는 5000여 명이 방문한다. 이들은 고도(古都) 전주의 은은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작가 최명희를 만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가 남긴 글귀를 만나. 최명희의 어록은 글을 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발명’을 하는 이들에게 한 번쯤 새겨 들어야 할 경구다.

“웬일인지 나는 원고를 쓸 때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도 간절한 일이라. 날렵한 끝이나 기능 좋은 쇠붙이를 가지지 못한 나는, 그저 온마음을 사무치게 갈아서 손끝에 모으고, 생애를 기울여 한 마디 한 마디, 파나가는 것이다.”

/전주=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혜기자 choi@kwangju.co.kr

소설 ‘혼불’ 주무대 최씨 종가 등 문학기행 코스 인기

남원 혼불문학관

“사람의 육신에서 그렇게 혼불이 나가면 바로 사울 안에, 아니면 오래가야 석 달 안에 초상이 난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운명하기 전에, 저와 더불어 살던 집이라고 할 육신을 가볍게 내버리고 홀연히 떠오르는 혼불은 크기가 종발만 하며 살 없는 빛으로 별 색 같이 맑고 푸르스름한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선히 보이는 것이었다.”(‘혼불’3권 107쪽)

전주에 작가 최명희를 기리는 문학관이 있다면, 남원

에는 작품의 배경이 된 혼불문학관이 있다. ‘혼불’이 한국의 감성과 정신의 결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라면 이곳은 주무대를 전시실로 구현한 공간이다.

2004년 건립된 혼불문학관은 디오라마(축소모형) 전시실로 구성, 전통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유품 전시실과 집필실인 작가의 방,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소설 배경이 되는 최씨 종가, 정호저수지 등과 연계된 문학기행 코스로 인기가 높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작가 최명희 생가터.



남원 혼불문학관 내부.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